

페퍼스, 뼈아픈 5연패 늪…‘敗소본능’ 벗어나야



조이 31득점 활약에도 현대건설에 저 범실·리시브효율 등 경기력 끌어올려야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5연패 수렁에 빠졌다.

페퍼스는 지난 9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의 원정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1-3(18-25 25-21 18-25 20-25)으로 패했다. 3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리를 내준 페퍼스는 5연패에 빠졌다.

1·2라운드 광주 흥에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3-0, 3-2로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달렸던 만큼 이날 패배의 아쉬움은 더 컸다.

이날 페퍼스는 세터 박사랑과 레프트 고예림을 세 경기만에 동시에 선발로 내세우며 리시브 라인 안정을 꾀했다.

최근 흔들린 수비를 되살리겠다는 장소연 감독의 해법이었지만, 경기 내내 리시브 불안과 높이 싸움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1세트 시작부터 범실 3개를 연달아 쏟아내며 3-9로 끌려갔고, 리시브 효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흐름을 내줬다.

시마무라의 속공과 후위로 물러난 조이의 백어택까지 살아남아 추격 발판을 마련하는 듯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양효진의 중앙 공격과 카리의 블로킹(1세트 블로킹 7득점)을 앞세워 18-25로

첫 세트를 가져갔다.

2세트에서는 페퍼스가 반격에 성공했다.

임주은과 박사랑의 연속 블로킹이 나오고 조이의 백어택이 터지면서 8-3까지 달아났다.

경기 중반 현대건설의 추격으로 20-20 동점을 허용했지만, 시마무라의 속공으로 다시 리드를 잡은 뒤 25-21로 세트를 따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3세트부터 승부는 다시 기울었다.

현대건설은 다양한 공격 옵션이 살아났다.

페퍼스는 조이·시마무라·이한비의 공격으로 벌어진 점수 차를 쫓아갔지만, 현대건설 세터 김다인이 양효진·카리·자스티스를 고르게 활용하며 공격 옵션을 넓혔다.

세트 후반, 페퍼스 리시브 라인이 다시 흔들리면서 결국 18-25로 3세트를 내줬다.

3세트 공격 성공률은 현대건설 48.6%, 페퍼스 39.4%였지만, 리시브효율에서 현대건설 33.3%, 페퍼스 12.5%로 떨어져 큰 격차를 보였다.

4세트, 초반 조이의 킥오픈이 아웃되며 0-5로 끌려갔으나 시마무라의 이동 공격 첫 득점이 나왔다.

세트 중반 투입됐던 신인 미들블로커 김서영이 선발로 나와 박사랑과 호흡을 맞추면서 분위기가



페퍼스가 9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의 맞대결에서 세트 스코어 1-3(18-25 25-21 18-25 20-25)으로 패했다.

전을 노렸지만 현대건설 양효진의 노련한 블로킹과 오픈 공격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은서 투입 이후 고예림·조이의 3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페퍼스가 13-15까지 따라붙었지만, 막판 현대건설 양효진의 블로킹·속공과 이예림의 킥

오픈을 막지 못하고 20-25로 마지막 세트마저 내줬다.

이날 조이는 전·후위에서 맹활약하며 31득점(전위 19·후위 10·블로킹 2), 이한비가 11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다.

그러나 승점을 추가하는 데 실패한 페퍼스는 6승 7패(승점 17)로 리그 5위에 머물렀고,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현대건설은 3연승을 내달려 8승 6패(승점 26)로 2위를 지켰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올해의 별은 누구...페퍼스, 조이·시마무라 출전 관심

V리그 올스타전 18일까지 투표

AI 페퍼스 선수들 가운데 누가 별들의 잔치에 설까?

프로배구 '진에어 2025-2026 V리그 올스타전'이 11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 팬 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페퍼스의 선수들의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투표는 11일부터 18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되며, 팬 투표와 기록 순위를 바탕으로 선발된 선수들은 K-스타, V-스타 두 팀으로 나눠 대결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올스타 후보'는 역시 아포짓 스파이커 포지션의 조이다.

페퍼스의 새 외국인 선수인 조이는 1라운드 막판 선발로 나선 4경기 가운데 3경기에서 30득점 이상을 올리며 팀 돌풍의 중심에 섰다.

중국생명·현대건설을 상대로는 33득점을 폭발시키며 주포의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21일 천적 정관장을 상대로한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트리플 크라운(후위 공격 6점·서브 에이스 4개·블로킹 3

개)까지 달성했다.

'강력한 한 방'과 서브, 블로킹까지 갖춘 아포짓이라는 점에서 올스타 포지션 한 자리를 노려볼 만하다.

미들블로커 포지션에서는 시마무라 하루요가 올스타 후보로 꼽힌다.

아시아쿼터로 새롭게 합류한 시마무라는 지난 1라운드 5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블로킹 2위에 오르며 미들블로커 지표 상위권에 올랐다.

2라운드 흥국생명전에서는 25득점을 쏟아내며 조이(33득점)와 함께 55점을 합작하는 등 공수에 걸친 활약을 이어가며 '공격형 센터' 이미지를 완전히 굳혔다는 평가다.

김연경이 빠진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를 채울 스타도 관심사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중국생명 김연경은 3년 연속, 역대 네 번째 남녀부 최다 득표자였다.

페퍼스의 아웃사이드 히터 부문에서는 박정아와 고예림이 나란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정아는 지난 시즌 484점을 올리며 득점 부문 10위에 오른 바 있는 겸증된 레프트로 올 시즌에

는 조이·시마무라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

리시브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주장' 고예림은 공격에서는 두자릿수 득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세터와 리베로 포지션에서는 박사랑과 한다혜의 도전이 펼쳐진다.

세터 박사랑은 올 시즌 초반 주전 세터로 코트를 지키며 공격수들과의 균형있는 호흡을 선보이고 있다.

리베로 한다혜는 지난 시즌 수비 기준기록 5000개를 돌파해 기준기록상을 받는 등 페퍼스 수비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는 남녀부 각 7명씩(아포짓 스파이커 1명·아웃사이드 히터 2명·세터 1명·미들블로커 2명·리베로 1명) 총 14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동일 구단 선수는 최대 3명으로 제한된다.

한편, 올해 프로배구 '진에어 2025-2026 V리그 올스타전'이 내년 1월 25일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주수빈·장효준·이동은, 2026시즌 LPGA 톨다

Q시리즈 통과...방신실 탈락

주수빈(사진)과 장효준, 이동은이 2026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주수빈은 10일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크로스스코스(파72)에서 열린 LPGA 웰리파잉(Q) 시리즈 파이널 스테이지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주수빈은 단독 2위로 웰리파잉 시리즈를 통과, 2026시즌 LPGA 정규 투어에서 뛰게 됐다.

또 이동은과 장효준은 나란히 10언더파 276타를 기록, 공동 7위로 2026시즌 LPGA 투어 시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상위 25위까지 2026시즌 LPGA 정규 투어에서 뛸 자격을 얻는다. 다만 공동 24위가 8명이 나와 실제로는 31명이 2026시즌 LPGA 투어에서 활약하게 됐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둔 방신실은 2언더파 284타, 공동 35위에

그쳐 2026시즌 LPGA 정규 투어 데뷔가 불발됐다. 커트라인인 공동 24위와는 3타 차이가 났다.

2019년 LPGA 투어 신인왕에 올랐던 이정은도 이븐파 286타, 공동 45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 공동 24위 미만 선수들은 순위에 따라 2026시즌 LPGA 2부 투어인 엡손 투어에서 뛸 자격을 얻는다.

올해 웰리파잉 시리즈에서는 헬렌 브림(독일)이 13언더파 273타로 단독 1위를 차지했다.

단독 2위 주수빈은 2023년 LPGA 투어에 데뷔했으며 올해 CME 포인트 102위에 그쳐 웰리파잉 시리즈로 밀려났다가 2026년에도 LPGA 투어 활약을 이어가게 됐다.

이동은은 2026시즌 LPGA 정규 투어에 데뷔하며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다.

이동은과 함께 공동 7위로 Q시리즈를 통과한 장효준도 주수빈과 나란히 2023년 LPGA 정규투어에 입문한 선수다.

올해 CME 포인트 145위에 머물렀으나 Q시리즈 선전으로 2026시즌을 기약하게 됐다. /연합뉴스

육상 최지우·우슈 김민수...전남도체육회 유공자 최우수선수 영예

최우수팀은 여수시청 요트팀·완도고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육상 3관왕에 오른 최지우(광양하이텍고 1년)와 우슈 4연패를 달성한 김민수(전남도청)가 '2025 전남도 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체육회가 10일 남악 스키아워딩컨벤션 4층 아노이홀에서 2025 전라남도 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전국체전 해단식을 겸해 열린 이번 시상식은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2026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관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전라도체육회 집행부 임원, 시·군체육회장, 회원 중목단제장, 스포츠클럽 관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시상식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감사패 전달·공로패 전달, 최우수 팀·선수 시상, 제106회 전국체전 체육유공자 시상, 전남도체육회장상 시상 등이 이뤄졌다.

최우수선수로는 U18 여자 400m와 1600m 릴레이 그리고 1600m 혼성 릴레이에서 3개의 금메달을 차지한 최지우와 우슈 남자일반부 산타 60kg급에서 4연패를 달성한 김민수가 선정됐다.

최우수팀 트로피는 혼성국제470급에서 금메달과 함께 1039점을 득점한 여수시청 요트팀과 역도

에서 금·은·동메달을 각각 2개씩 수확한 완도고에 돌아갔다.

전남도체육회 장문환, 이영현 이사 등 전남체육 발전에 역할을 한 체육인 97명은 표창 주인공으로 단상에 올랐다.

전남체육 한 해를 담은 영상 시작으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손점식 사무처장의 2025년도 전남체육 성과 보고, 선수단기 반환, 유공자 시상 등이 이뤄졌다.

이순이 전남도체육회 이사, 정대민 전남도국학 기공협회장 등 50명이 도지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서정복 전남도체육회 고문과 강강원 전남도체육회 부회장 등 15명은 도의장 표창을 받았다.

/김지율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장 공모전시

호점몽 : 고미아 개인전

일시 : 2025-12-05(금) ~ 2025-12-31(수)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401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Winter Rhapsody'

일시 : 2025-12-12(금)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